들리는 기쁨! 새로운 인생!
국제보청기
SINCE 1982
광주본사 062) 227-9940 서울지사 02) 765-9940

전남매일

보광건설(주)

제7976호 대표전화 062-720-1000 jndn.com (음력 8월 24일) 2018년 10월 3일 수요일

수입산 활어 국산 둔갑 '만연'

참돔·농어 등 상위 세 어종 원산지 위반율 27%

올해 577톤 수입…수산물 구입시 꼭 확인해야

참돔과 농어 등 선호도가 높은 횟감 활어일수록 원산지 위반율이 높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일본산 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등도 상당량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수품원)따르면 현재 시장 유통되고 수입산 횟감 중 참돔, 홍민어, 점농어 등의 비중은 32.4%를 차지하고있다.

이 가운데 홍민어는 일반 음식점에서 '점성어'로 판매되고 있다. 전남 신안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민어와는 차이가 있다.

어종별로 올해 수입 현황을 보면 홍민어 278톤으로 가장 많았고, 점농어 171톤, 참돔 128톤 등 이들 세 어종만 올 9월 현재 577톤이 수입됐다.

반면 수입량이 네번째로 많은 감성돔은 25톤, 도다리 14톤 등 수입량 10위까지 어종을 모두 합해도 100톤을 넘지 않았다.

문제는 수입량 점유율이 높은 어종들의 원산지 위반 비중도 높다는 점이다. 수입량 상위 세 어종의 원산지 위반 비율은 전체 27%에 달했다.

또한 올 들어 횟감 원산지 위반 건수도 많아 올 8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123건으로 지난해 전체 위반건수(108건)를 훌쩍 넘어섰다.

수품원 관계자는 "세 어종은 국내산과 일본산 또는 중국산과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품원은 지난달 추석기간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일본산 가리비와 중국산 조기·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건은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외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39건에 대해서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품원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4주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반은 활어 판매점 및 횟집에서 소비자를 가장해 횟감을 확보한 후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5·18묘지 찾은 YWCA 여성평화순례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광주 5·18 치유를 위한 역사 바로알기 등을 위해 2일 오전 '한민족 여성과 함께하는 YWCA 여성평화순례단'이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흑산공항 건설 심의 중단

사업자 서울항공청, 서류 다시 제출키로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결국 중단됐다.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키로 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 흑산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환경부는 2일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안건인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재보완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지난 1일 제출함에 따라 현재 정회 중인 제124차 위원회가 자동 폐회된 것이다.

앞서 전남도도 지난달 27일 심의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환경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발송했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추진해온 흑산공항은1,833억 원을 들여 흑산도 68만 3,000㎡ 부지에 1.2㎞ 길이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이다.

지역 주민들은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를 들어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경제성, 안전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해왔다. /강병운 기자

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19일 끝났고 청와대는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으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전남 무안공항 활성화 첫 단추 꿨다

실무협의회 개최…이행방안·통합절차 등 논의

광주 민간공항이 오는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과 통합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일 무안국제공항 회의실에서 지난 8월20일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첫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전남 관광협회 등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실무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향후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발전 단계별 이행방안 수립, 공항 통합절차와 경쟁력 확보 이행방안, 관광상품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적극 소통 협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무협의회는 2021년까지 광주무안공항 통합추진, 통합후 기능 재정립, 공항 활성화 방안 모색,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기반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만들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 등 11개 기관·단체 위원 29명으로 구성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되면 연간 200만 명 이상의 항공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서남권 물류 거점공항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원활한 무안공항 통합을 위해 실무협의회 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focus
전두환 광주서 재판 받는다 ▶9면 보성 노인상대 '떳다방' 기승 ▶10면